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1

2014

조선사회과학자협회통보를 내면서

현시기 자주가 더욱더 거세찬 시대적흐름으로 되여가면서 세계적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많은 나라의 정계, 사회계, 학계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심화시키며 그것을 자기 나라의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이 하며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조선의 현실을 알고싶어하는 전세계의 진보적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을 위하여 《조선사회과학자협회통보》를 발행한다.

통보에는 국내외의 여러 인사들과 학자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해설한 글들과 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한 글들,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소식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의 활동소식 등을 싣는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통보가 자주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심, 용기를 주는 정신적량식, 친근한 길동무가 되기를 바란다.

차　　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김성일

올해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지 20 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지 3 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7 월 8 일과 12 월 17 일은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우리 인민들은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나라의 곳곳에 모셔진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삼가 경모의 인사를 드리며 수령님들의 영생을 축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수령님들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와 함께 계시며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위인이 영생하는것은 그 어떤 말이나 구호때문이 아니라 사상이 위대하고 업적이 위대하기때문이다. 수령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업적의 영생이다.

세계에는 사회의 진보와 발전, 인류해방위업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고 사람들의 기억속에 오래동안 추억되는 위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인민의 걸출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렬해지는 그리움과 경모심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인들은 일찌기 없었다.

주체의 태양, 이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시대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며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만대에 빛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영원한 흠모와 칭송의 대명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룬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함으로써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인민대중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과 전략전술, 방법에 의거하여 자주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그 원리와 원칙, 요구를 구현한 선군사상, 선군혁명리론이 밝혀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이 마련되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그 빛발아래 세계적범위에서 자주화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혁명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자주적인 혁명사상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수령님들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전 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은 수령님들의 존함과 더불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영원히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영원한 주체의 태양이시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온 선대수령들이 이룩한 업적에 토대하여 대를 이어 전진하며 종국적으로 완성

된다. 수령님들께서는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시는 력사적로정에서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로동당과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공화국정권, 무적의 인민군대를 건설하시고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일심단결된 혁명적인민으로 키우시여 혁명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정치적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출중한 령도력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희세의 탁월한 정치가이시며 령도의 거장이신 절세의 위인들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은 우리식 사회주의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주신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전환기에 제국주의반동들의 압살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지만 우리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이 서있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며 끊임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수령님들의 위대한 업적을 실증해주고있다.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업적은 혁명의 먼 장래를 환히 내다보시며 주체혁명위업을 세기와 세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데 있다. 혁명위업계승에서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기본으로 보시고 이 문제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신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령도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혁명위업계승의 세계사적본보기가 창조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장구한 기간 혁명을 이끄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의 만년토대이다. 이 위대한 혁명업적이 있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영원한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수령님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생하실것이다.

력사는 걸출한 위인을 수령으로 모시였지만 령도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지도자를 잘못만난 탓으로 수령의 사상과 업적이 훼손되고 사회주의위업이 중도반단된 사실을 기록하고있다. 오직 탁월한 령도자를 모셔야 수령의 사상과 업적이 대를 이어 고수되고 빛나며 수령의 영생이 현실로 담보된다는것이 력사의 총화이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것은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선대수령들에 대한 절대불변의 충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가장 순결하게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정중하게 꾸리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령님들의 동상과 영생탑들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척같은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받들어모시도록 하시였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그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가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혁명이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게 되였으며 이 땅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게 되였다. 최근에만 하여도 인공지구위성《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으로

우리 나라의 막강한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는 가운데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인민봉사기지들과 문화시설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은 수령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과 념원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

선군조선의 엄연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은 영원하며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철의 진리로 확신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이 땅에서 기어이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것이다.

선군혁명사상의 시원

리성철

드넓은 대지를 꿰지르며 용용히 흘러가는 대하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흐름이 시작되는 원천, 시원이 있다. 여기에서 시작되여 돌돌 흐르던 작은 물줄기가 점점 커지고 세차져 마침내는 도도하고 장쾌한 흐름을 이루게 되는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혁명사상도 빈 터전에서 저절로 생겨나 한순간에 완성되여나오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행세대가 이룩한 사상정신적재부를 토대로 하여 나오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선군혁명사상은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과 《ㅌ.ㄷ》의 강령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선군혁명사상은 우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유산인 두자루의 권총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고귀한 혁명유산을 물려받으시였다.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재물이나 금전상의 상속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서 쓰신바와 같이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가정살림에 도움이 될 재산이라고는 남기신것이 없었다. 지금 만경대고향집에 전시되여있는 농쟁기나 가정도구들도 모두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께서 남기신것이지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주신것은 아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그 어떤 물질적재산이 아니라 사상정신적재부를 위대한 수령님께 유산으로 넘겨주시였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

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유산의 전부였다.

이 귀중한 혁명유산들가운데서 두자루의 권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의 진가를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보시고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을 내놓으실수 있게 한 고귀한 혁명유산이였다.

무장투쟁으로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는것은 김형직선생님의 총적지향이고 목표였다.

당시 나라의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자들의 반일운동은 많은 경우 사대주의적이며 무저항주의적인 《청원》과 《외교》활동, 비폭력적인 시위운동 등에 머물러있었다.

하지만 《청원》이나 《외교》, 시위운동 같은것으로 결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조선인민의 반일독립투쟁사가 보여준 피의 교훈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청원》이나 《외교》가 아니라 무장활동을 해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 확신을 품으시고 새로운 무장활동준비를 다그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자신께서 간직하시였던 지향과 못다하신 조국해방위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끝까지 실현시켜주실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자루의 권총을 넘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없는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에서 힘을 얻고 갈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시였다.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준비하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자루의 권총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아버지는 의병도 아니고 독립군도 아니였지만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 왜?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최고의 투쟁형태라고 인정하였기때문이다. 아버지의 총적인 지향은 무장투쟁을 하자는것이였다. 나는 이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가 지향했던

것을 내가 대신하여 실현시키고야말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이제는 때가 되였다. 이 두자루를 밑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 자루, 2, 000 자루, 2 만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 000 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밑천이 있으니 이것을 자꾸 굴려 2, 000 자루, 2 만자루가 되게 하자!》

정녕 두자루의 권총은 무장투쟁으로써만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위대한 사상이 담겨진 혁명유산이였으며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총대를 앞세워 혁명을 개척하시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실수 있게 한 귀중한 자양분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에서 총은 혁명가의 필수불가결한 동반자이며 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총대를 틀어쥐여야 한다는 혁명의 심원한 리치를 자각하시고 총대중시의 혁명사상, 선군혁명사상을 내놓으시였던것이다.

선군혁명사상은 또한 《ㅌ. ㄷ》의 강령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조선혁명은 지금으로부터 어언 80 여년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참신한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 ㄷ》)을 결성하심으로써 력사의 닻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ㅌ. ㄷ》를 결성하신것은 총대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의 선포였으며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와의 대결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ㅌ. ㄷ》결성모임에서 하신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보고에서 반일투쟁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자면 일부 그릇된 민족주의운동자들과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투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상층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운동으로,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조선의 독립을 달성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며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동맹의 강령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ㅌ.ㄷ》의 강령은 선군사상의 근본정신인 투철한 반제자주정신이 천명된 위대한 강령이였다.

견결한 반제자주정신은 선군사상에 관통되여있는 근본정신이다. 총대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총대를 앞세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이라는데 선군사상의 근본특징이 있다.

《ㅌ.ㄷ》의 강령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며 총칼을 휘두르는 강도 일제를 오직 자기의 힘, 무자비한 혁명적폭력으로 징벌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선군혁명사상이 구현되여있다.

이렇듯 선군은 혁명의 닻이 오른 《ㅌ.ㄷ》의 강령에서 시작되였다.

위대한 인간 김정은동지

최현호

오늘날 선군조선의 태양으로 칭송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참으로 젊으신분이시다.

그이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추대되신지는 2년 남짓하다.

이 짧은 기간에 그이께서는 정치가들 누구나 쉽게 도달할수 없는 높이의 령도적권위를 지니시였고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령도적권위와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는 그이께서 소유하고계시는 완벽한 수준의 정치실력과 쌓아올리신 업적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적권위는 그이의 정치실력과 업적뿐아니라 그이께서 지니신 특이한 인간적매력에 의하여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간적매력은 만유인력과도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무한한 매혹과 신뢰를 자아내고있다. 한번만이라도 만나뵈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이한 천품에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따르게 되는 분이 바로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간적매력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사랑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후대들에 대한 사랑, 인류의 밝은 미래에 대한 사랑이 그이의 크나큰 심장에 꽉 차있다.

서방의 일부 언론들은 **김정은**동지를 매우 엄하고 자비를 모르는 군사가형의 국가지도자로 평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물론 엄한분이시다. 그리고 원쑤에 대하여서는 추호의 자비도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것은 그이의 사랑이 너무도 강렬하고 뜨겁기때문이다. 사

랑이 크면 클수록 증오도 더욱 강렬한것으로 되는 법이다.

사랑하는 인민들이 배를 곯게 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추위에 떨게 하며 인간으로서 생존할 권리마저 지킬수 없게 하려는 원쑤들에 대하여 과연 어느 어버이인들 무자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복을 받아안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을 얻으신듯 그리도 기뻐하시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하는것이라고 늘 말씀하군 하신다. 그러시다가도 일부 일군들의 잘못으로 인민들에게 가닿아야 할 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면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자신께서 스스로 그 짐을 걸머지신다.

건설중에 있는 창전거리 초고층살림집을 돌아보실 때에는 사랑하는 인민들이 살게 될 집이라고 하시며 승강기도 없고 보호란간조차 없는 위험한 계단을 올라 마지막층계까지 밟아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신 이야기며 준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여서는 공중삭도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 단신으로 삭도를 타시고 눈바람이 몰아치는 높은 산정을 오르신 이야기, 외진 섬마을의 몇명 안되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자신께서 직접 시공주가 되시여 도시부럽지 않은 살림집들과 편의시설들을 그쯘하게 갖추어주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그이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말해주는 일화들은 수없이 많다.

인류가 세기를 두고 기원하여 온 종교적《사랑》이나 인문주의선구자들이 인간의 량심에 열렬히 호소한 박애주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지 못한채 리상으로만 남아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함과 행복감을 현실에서 페부로 느끼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간적매력에서 또하나의 특징적인것은 약속을 귀중히 여기시는분이시라는것이다.

약속은 곧 믿음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약속은 최대로 신중해야 하며 또한 일단 이루어진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과 한 약속은 어느 하나도 어기시는 법이 없고 설사 그것이 철부지아이들과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신중히 대하시고 꼭 지켜주신다.

어느 공장 혹은 가정을 찾으시여 다시 또 오겠다고 약속하시였으면 어김없이 지키시고 군인들이나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였으면 온 나라를 다 기울여서라도 무조건 해결해주신다.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릉라인민유원지과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모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들과 한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의 건설대상만도 여러차례 찾으시여 인민들과 한 약속인데 자그마한 손색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시공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비오는 건설장을 찾으시여서는 몸소 우산을 받쳐드시고 형성도안도 그려주시며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런 령도자를 인민들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인민들 누구나 스스럼없이 령도자에게 자기의 소망이 담긴 편지를 올리고 령도자는 친필로 된 회답을 보내주는것과 함께 그 편지에 담겨진 소망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풀어주는 이러한 감동적인 소원과 약속,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아마도 조선에서밖에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귀맛좋은 약속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에서는 언제 그랬던가싶을 정도로 약속에 랭담해지는 서방의 정치세계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라고 할수 있다.

언제나 인민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것을 매우 좋아하는것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이한 인간적매력이다.

국가령도자는 공식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국가령도자는 몸가짐과 언행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엄격히 차이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을 대상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것이 일반적으로 공인된 인식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언제나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민들과 어울리는 인민형의 령도자이시다.

그 어디를 가시여서도 간부들보다 인민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과 허물없이 팔을 끼고 다정히 이야기도 나누시며 함께 사진도 찍어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새집들이를 한 로동자부부의 가정을 찾으시여 몸소 사랑의 축배술도 부어주시고 동해의 수산사업소에 가시여서는 창고에 가득 쌓인 물고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콩크리트바닥에도 서슴없이 앉으시는 그이의 모습을 뵈오면서 인민들은 누구나 자기들과 너무도 간격이 없는 그이의 인민적풍모에 매혹되군 한다.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외진 섬초소를 찾으시여 군인들에게 친어버이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떠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바래드리며 겨울의 차디찬 바다물에 서슴없이 뛰여드는 전사들이 감기에라도 걸릴가봐 배전을 잡으시고 손으로 거듭 떠밀어주시는 그이의 모습은 정녕 인민의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민적령도자의 가장 평범하면서도 감동적인 모습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간적매력, 인간적향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이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고 그이를 무한히 따르게 하며 그이와 하나가 되기를 최대의 소원으로 간주하게 하는 빛이고 열이다.

그것으로 하여 오늘날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영원한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

김창경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여온 승리의 력사이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해방후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큰 나라들사이에 끼여있어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은 언제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우리 혁명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현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나라의 실정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정정당당하게 해나갔다. 새 조국건설의 나날들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 로선과 정책작성에서 일관하게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인민정권을 강화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 일심단결

과 불패의 군력을 더욱 굳게 다지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비롯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다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결정된것들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불타는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최악의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다른 나라들에서는 수백년이 걸렸다고 하는 공업화도 14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하였으며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며 사회주의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선군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보검이다.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고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항시적인 위협을 당하고있는 우리 혁명은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군사를 확고히 앞세우시고 혁명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복잡다단한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2년 4 월 25 일 조직적인 무장대오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그 다음에 당도 국가도 창건하시였다. 해방후에도 군사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미제와 15 개 추종국가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미제의 내리막갈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총대중시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시였다.

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으며 특히 1990년대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한 차례의 세계대전과 맞먹는 조국수호전에서 백승을 떨치시고 정치사상, 경

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이룩하시였다.

선군으로 다져진 힘이 강하기때문에 미국은 감히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였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강위력한 보루로 되고있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각계각층 인민들을 국가주권활동에 적극 참가시켜 나라의 크고작은 정사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토의결정하고 집행해나가도록 하고있으며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 최고의 원칙으로 되고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고있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참된 충복답게 살며 일해나가고있으며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생활의 믿음직한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일떠섰으며 오늘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우리 혁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빛내여주고계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따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 소식

2014년 4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의 20 여개 나라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일본)의 개막발언에 이어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지승철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메히꼬)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부위원장 오마르 로뻬스(베네수엘라),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헨리 마씨쿄(우간다), 몽골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성원드. 엔흐바드랄뜨, 일본**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련락회 공동대표 가마꾸라 다까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드미뜨리 겐나지예비치 꼬스쩬꼬,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앙드레 로헤껠레 깔론다 (민주꽁고), 벨라루씨 2.16 명칭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 부위원장 따찌야나 왈렌찌노브나 자이쩨바가 토론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나이제리아전국위원회 위원장 알 하싼 맴맨,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인 방글라데슈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가리브 네와즈,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서기장 쟈베드 안싸리,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쏭치트 풀랍,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부위원장 겐나지 뻬뜨로비치 꿀리꼬브 등이 서면토론을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21 세기 인류의 자주위업을 다그쳐나갈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세계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유럽의 경험과 역할》에 관한 유럽지역주체사상토론회 소식

2014년 5월 3일 이딸리아의 수도 로마에서는 《세계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유럽의 경험과 역할》에 관한 유럽지역주체사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일본)와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인 에드몽 쥬브(프랑스),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까르보넬리(이딸리아),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리사들을 비롯하여 50여명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인 에드몽 쥬브(프랑스)가 《세계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유럽의 경험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이어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일본), 영국선군정치연구소조 대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 총서기 미하일 빤첸꼬, 벌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 류드밀 꼬스따디노브,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니꼴라이 뾜리슈크,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부리사장 키스 벤네트(영국),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끼엑씨, 오스트리아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 책임자 토마스 뢰쉬, 이딸리아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알도 베르나르디니,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리사 린씨노디움(프랑스), 주체사상연구소 로므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가 토론을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세계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유럽의 경험과 역할》에 관한

유럽지역주체사상토론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유럽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해나갈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년대의 상징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철령아래 사과바다 - 고산과수농장

인민의 집 - 류경치과병원과 옥류아동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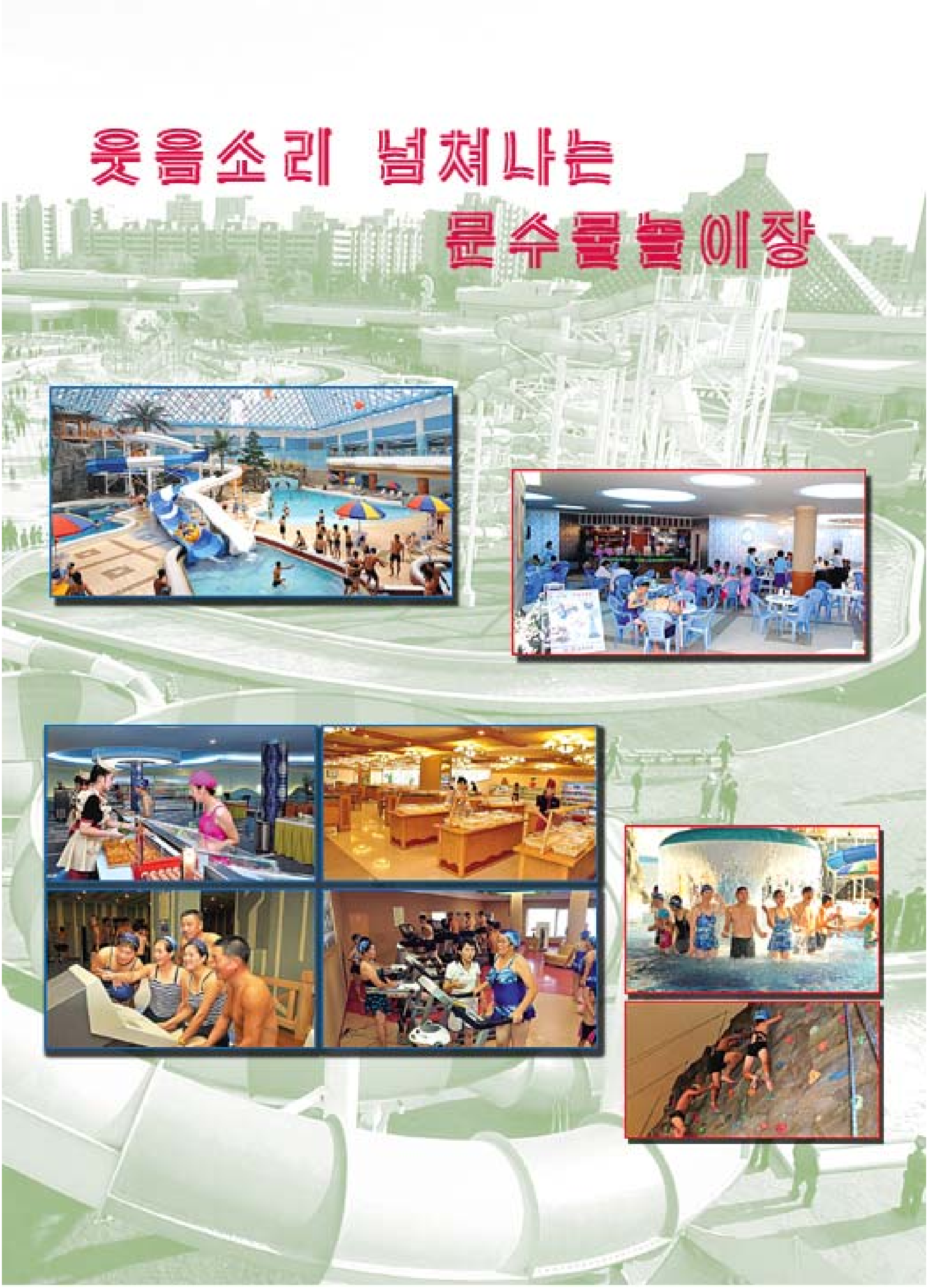





불쑥 솟은 하나의 새 도시
은하과학자거리


사랑의 금방석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웃음소리 넘쳐나는 문수물놀이장



인민에게 안겨준 사랑의 선물

미림승마구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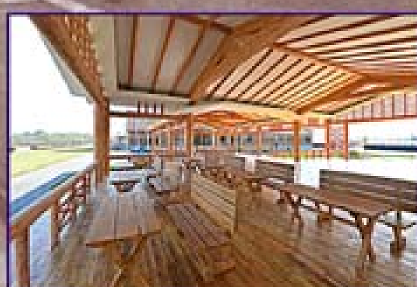












문명과 비약의 상징-마식령스키장









